

타이, 석유화학 투자 각축장화

PTT-Siam 주축 신증설 움직임 활발 ... 불확실성 해소가 과제

타이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Siam Cement Group의 Cementhai는 ROC의 제2기 증설을 위해 8월말 입찰을 실시하며 일본 및 한국계 엔지니어링기업 4사가 응찰할 예정이다. 나프타(Naphtha) 베이스 에틸렌 80만톤 크래커를 Map Ta Phut에 건설할 예정이다.

Siam Cement와 함께 타이 석유화학을 양분하고 있는 PTT(타이석유공사)의 NPC(National Petrochemical)도 차기증설 검토에 들어갔으며, PTT도 제6 GPP(가스처리설비)나 Central Utility 등 건설검토를 한창 추진하고 있다.

프로판탈수소 프로젝트는 2004년 말 입찰이 예정돼 있어 TOC(Thai Olefins)나 ATC(Aromatic Thailand) 등의 신증설에 이어 석유화학 사업의 대형화,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타이 석유화학산업은 정부계 PTT Group(PTT·NPC·ATC·TOC)과 Siam Cement Group으로 양분돼 있으나 모두 2003년 후반 이후 가격상승과 국내수요 확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로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형 환차손을 입은 Siam Cement Group은 공급부족 해소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증설 등 일련의 증설 후에 재무체질의 건전화에 주력해 투자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재무체질 개선의 목표를 2003년 4/4분기까지 달성했으며 석유화학제품 가격이나 국내외 수급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에틸렌 센터인 ROC의 제2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Siam Cement Group은 현재 에틸렌 생산능력이 80만톤으로 나프타 베이스 에틸렌 80만톤 크래커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쳐 8월말 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Toyo Engineering을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4사가 응찰할 예정인데 제1기 건설 및 공급부족 해소 프로젝트는 Toyo가 담당했었다.

PTT Group도 TOC의 MEG(Monoethylene Glycol)에 이어 프로판탈수소 프로젝트를 결정했으며 ATC 증강을 포함해 플랜트에 종합적인 Utility를 제공하는 Central Utility 건설계획도 발표했다. 프로판탈수소는 2004년 말까지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NPC는 제2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검토단계로 40만톤 혹은 80만톤의 에탄 크래커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에탄을 공급하는 PTT는 NPC가 80만톤 크래커 건설에 들어가면 기준설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제6 GPP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Cumene·Phenol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UOP가 기술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PTT는 페놀 투자의 타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가 동남아에서 독보적인 석유화학산업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원료가격 상승 및 자재가격 인상으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Siam Cement는 NPC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어 이미 수정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필두로 하는 국내수요 및 중국수출을 비롯한 수출증가를 배경으로 투자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09/06>